

휴대전화의 사용동기 유형과 손실지각 정도가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Using Motivation Type for Mobile Phone and the Degree of Loss Perception on Mobile Phone Consumption Consciousness in Adolescent

경북대학교 가정교육과
석사과정 구 효 정*
교 수 장 윤 옥**

Dept. of Home Economics Ed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ster: Ku, Hyo-Jung

Professor: Jang, Yoon-O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의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use motivation type for mobile phones and the degree of loss perception related to mobile phone consumption consciousness in adolesc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03 stud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 in Daegu. A questionnaire was used for the survey.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and MANOVA were employed for the data analysis and the Scheffé test was used for post-hoc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obile phone consumption consciousness in all sub-dimension areas according to use motivation type for mobile phone.

Second, adolescents with high economic loss perception for mobile phones show high consumption consciousness in sub-dimension area, and adolescents with high

* 주저자: 구효정 (ddalki9c@hanmail.net)

** 교신저자: 장윤옥 (yojang@mail.knu.ac.kr)

academic loss perception show high relation-oriented consumption consciousness. Adolescents with high physical loss perception show high health-oriented, relation-oriented, and function-oriented consumption consciousness. Adolescents with high psychological loss perception, on the other hand, show high relation-oriented consumption consciousness.

Thir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obile phone consumption consciousness according to use motivation type for mobile phones and the degree of overall loss perception. However,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obile phone consumption consciousness according to use motivation type for mobile phones and the degree of overall loss perception.

Key Words : 휴대전화 소비의식(Mobile phone consumption consciousness), 사용동기 유형(Use motivation type), 손실지각(Loss perception)

I. 서론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우리 삶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인들은 물론이고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없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사람들은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사람들과 연락하며, 자신의 스케줄을 관리한다. 최근에는 3G(3Generation) 폰 안에 있는 가입자확인칩(USIM)에 자신이 거래하는 모든 은행의 계좌정보를 담아 बैं킹서비스뿐만 아니라 증권 계좌관리 및 주식 매수·매도 주문까지 가능해지고 있다. 점차 다양해지는 기능으로 인해 휴대전화는 이제 단순히 연락을 위한 수단이나 카메라, 인터넷, TV 시청, 영상통화, 오락, MP3 등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 휴대전화는 생활의 일부가 되어 그들의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유로운 이동성과 즉시성, 그리고 편리성 등의 특성을 가진 휴대전화는 청소년의 생활과 사회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청소년의

시간과 생활 장소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Wiebe, 2005). 청소년들은 휴대전화를 자신의 일부로 여기고(김광수·박효정·송인기, 2006),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면 하루 종일 허전함과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휴대전화는 더 이상 과시하기 위한 것이나 사치품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고 있어(김혜수, 2005) 기성세대보다 적응력이 뛰어난 청소년들에게 휴대전화의 영향력은 더 크게 작용함을 볼 수 있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동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윤두연, 2005; 장은순, 2006; 편혁미, 2003)은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동조성을 느끼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휴대전화의 최신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친구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료한 시간을 휴대전화 내에 있는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동기로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남학생은 정보를 습득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학생은 시간을 절약하고 오락을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더 많이 사용한다(천혜정, 2006)고 한다.

한편 또 다른 선행연구들(권한숙, 2004; 송중현, 2003)은 휴대전화 사용에는 하나의 동기

만이 아닌 다양한 동기가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휴대전화 사용동기들을 유형별로 분류한 후 이들 사용동기 유형에 따른 휴대전화의 소비의식 및 소비행동 등을 연구하고 있다. 즉, 다양한 동기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개방형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폐쇄형의 청소년들보다 휴대전화 사용 요금을 더 많이 쓰고, 자신을 표현하고 즐기는 성향이 강한 쾌락형의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단순히 타인과 대화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기능형의 청소년들보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더 자주 교체한다(권한숙, 2004)는 것이다. 또 도구적 사용동기와 표현적 사용동기가 모두 높은 복합적 사용동기 유형의 청소년들은 이들 두 가지 사용동기가 모두 낮은 제한적 사용동기 유형의 청소년들보다 더 다양한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휴대전화 통화대상자도 많다(송중현, 2003)고 한다.

이와 같은 휴대전화 사용동기의 각 요인에 따른 휴대전화 소비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휴대전화 사용동기 유형에 따른 휴대전화 소비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비교해 볼 때 전자가 단편적이거나 상이한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대체로 일관된 휴대전화 소비 경향성을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휴대전화 사용자를 유형화하여 살펴보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사용동기 각 요인들만으로는 전반적이고 일관된 휴대전화 소비의식을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휴대전화 사용동기 요인의 공통된 특성을 추출하여 유형화한 다음 휴대전화 사용동기 유형에 따라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소비의식 경향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한편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휴대전화 구입 및 사용에 따른 여러 손실을 일으키기도 한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으로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공부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김미라, 2007; 정문균, 2002),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휴대전화 사용 요금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한다(한국소비자보호원, 2004). 또 전자파에 노출되어 뇌 세포가 손상될 수도 있다(민선애, 2007)는 건강상의 문제나 시간 낭비, 불안감 등을 초래하기도 하고 가족 간의 대화를 감소시키기도 한다(이정은, 2006). 심지어 시험에서 부정행위의 도구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건전한 성가치관의 확립을 저해하는 성인용 콘텐츠에 접속하는(김혜수, 2005)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휴대전화의 문제점을 휴대전화 소비자들이 인식하면 할수록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지식수준을 높이려 함으로써 대체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고(허경옥, 2003) 올바른 휴대전화 소비의식을 가지게 된다.

청소년기에 학습되고 형성되는 소비가치나 의식은 성인기까지 이어지기도 하므로 청소년들의 실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청소년기부터 올바르게 사용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잘못 사용할 때 그것이 자신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손실을 명확히 지각하게 한다면, 더 나아가 손실지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면 휴대전화 소비의식 및 소비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강나희, 2004; 허경옥, 2003).

청소년의 바람직한 휴대전화 소비문화와 소비의식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청소년의 각 하위영역에 있어서의 손실지각 정도와 이들 손실지각 정도가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 혹은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휴대전화 소비의식은 일부 요인에 국한된 개념이 아닌 전반적

으로 휴대전화 소비자가 느끼는 의지와 감정을 나타내므로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에 대한 사전 계획에서부터 실제적인 구매, 효과적인 사용 및 처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소비의식에 관한 정보 또한 요구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도 계획·구매·사용·처분의 모든 소비 과정에서 어떤 사용동기 요인에 따라, 그리고 손실지각 정도에 따라 실용적, 계획적, 합리적인 방향으로 휴대전화를 소비하는가(김경훈, 2003)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때와 장소를 구별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등 진정한 의미에서의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김선만, 2000; 김시월·김유진, 2008; 이경숙, 2002)은 청소년들의 구매행동은 성인들보다 자신의 주관적 규범과 자신의 취향, 그리고 휴대전화의 디자인 및 사용 요금에, 사용행동은 휴대전화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저렴한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에, 또 처분행동은 처분방법을 잘 몰라서 그냥 보관해 두거나 버리는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김선만, 2000) 및 성인과 청소년의 휴대전화 구매의사결정 과정의 차이(이경숙, 2002) 등 특정한 소비요인에만 관심을 두고 있거나, 청소년들의 현재의 휴대전화 소비행동(김시월·김유진, 2008)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동기 특성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사용동기를 유형화하고, 이러한 휴대전화 사용동기 유형과 손실지각 정도가 앞으로의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또 휴대전화의 사용동기 유형과 손실지각 정도 각각의 변인으로 휴대전화 소비의식을 살펴보는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이들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휴대전화 소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동기 유형과 손실지각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휴대전화 소비의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구체적이고 의미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휴대전화 소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청소년들이 올바른 휴대전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휴대전화 사용동기 및 유형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항상 휴대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동성(Roos, 1993), 일대일이나 일대다의 정보교환이 모두 가능한 동시에 다량의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서의 정보전달성(송재원, 2005), 그리고 혼자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자기표현과 하위문화 형성의 수단으로 중요성을 지니는 개별성 혹은 비공유성(백명옥, 2005)이라는 긍정적인 특성들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 특성으로 생성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휴대전화 사용동기라고 하는데(송중현, 2003) 이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Leung과 Wei(1998)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이들은 휴대전화의 사용동기는 정보추구, 오락, 패션·지위, 사교적 사용에서 비롯되며, 휴대전화 사

용에 있어서는 역시 도구적 사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Leung과 Wei(2000)는 위급한 상황에서 안심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새로운 사용동기를 밝히면서 휴대전화 사용동기를 패션·지위, 감정·사회성, 휴식, 이동성, 즉시성, 도구성, 안심의 7가지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Ling(1998)은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동기를 연락가능성, 부모로부터 해방 또는 독립, 안전, 일상생활의 조율, 과시의 5가지 요인으로 분류·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휴대전화 사용동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욕구 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연락으로부터 소외되었을 경우 느낄 수 있는 불안감 등 또래집단에 속하기 위해 동질적인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청소년 집단의 특성이 반영된 동기라고 말하고 있다(Ling, 1998). 그리고 Cormier(2007)는 고등학생들은 휴대전화를 친구나 가족들과 연락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안전감을 제공받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한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동기 요인을 송중현(2003)은 도구적 사용동기와 표현적 사용동기로, 편혁미(2003)는 사교, 거래, 즉시성, 체면·동조, 프라이버시, 과시, 이동성, 오락의 8가지로 분류·제시하고 있다. 또한 양심영과 박영선(2005)은 스트레스 해소, 익명성, 호기심, 정보용이성, 새로운 정체성, 시간소비, 또래소속감, 외로움 해소, 상상력 등의 9가지 요인으로, 장은순(2006)은 정보·오락이용, 또래소속감, 편리성, 습관, 도피, 심리안심·안도, 유행·과시 등 7가지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휴대전화 사용동기를 이인희(2001)는 사회적, 기능적, 심리적, 문화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고, 나은영(2001)은 한국의 문화적 요소로 인해 서양과는 다른 사용동기, 즉 과시, 체면, 동조와 같은 사

용동기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 박용기(2003)는 습관·무료함, 도피, 오락, 휴식, 흥분, 사교 등 6가지 사용동기 요인을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정리하면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동기는 도구적 사용동기로 정보습득, 시간관리, 휴식요인을, 문화적 사용동기로 대화, 체면, 과시요인을, 심리적 사용동기로 안심요인을, 그리고 오락적 사용동기로 재미, 오락요인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송중현, 2003; 이인희, 2001).

휴대전화의 다양한 사용동기가 휴대전화 사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그 사용 정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짐(송중현, 2003)에 따라 최근에는 청소년의 휴대전화의 구체적인 사용동기에 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휴대전화의 사용동기 요인만을 분류하고 있거나 각 동기요인에 따른 연구결과들이 너무 각양각색이고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휴대전화 사용의 각각 동기 요인들을 유사한 특성에 따라 특정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각 유형에 따른 특성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휴대전화 소비양상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동기를 유형화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권한숙(2004)은 청소년 휴대전화 소비자를 유형화하기 위해 과시·동조적, 유행·오락적, 커뮤니케이션적, 안심·프라이버시적의 네 가지 휴대전화 사용동기 요인을 기준으로 군집분석한 후 청소년 소비자를 개방형, 기능형, 쾌락형, 폐쇄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대학생의 휴대전화 사용동기를 유형화한 송중현(2003)은 휴대전화 사용동기를 도구적 사용동기와 표현적 사용동기의 두 차원으로 크게 나누고 이를 근거로 복합적·도구적·표현적·제한적 사용동기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성인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자의

집단적 특징에 따라 유형화한 성동규와 조윤경(2002)은 가족 및 사회집단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자기관리, 개혁수용 여부라는 사회적 성격의 네 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군집분석한 후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개혁적 타인지향형, 다수적 내적지향형, 지체적 전통지향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은실(2000)은 휴대전화 소비자를 휴대전화 서비스의 효용과 비용요인에 따라 유형화한 후 관계지향적 경제비용 민감형, 통신지향적 경제비용 민감형, 쾌락지향적 사회·심리비용 민감형, 무효용 비용 둔감형의 소비자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2. 휴대전화 손실지각

휴대전화에 대한 손실지각은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이나 손실에 대해 휴대전화 소비자가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강나희, 2004).

휴대전화는 이동성, 정보전달성, 비공유성 등과 같은 장점도 있지만, 자기통제력이나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과도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생활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휴대전화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전자파에 노출되고, 이 전자파는 중요한 뇌 세포를 손상시켜 두통 및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말할 수 있다. 전자파는 통화를 위해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에 안테나와 휴대전화 본체 연결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이는 여러 질병을 일으키며 수면장애까지 유발한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또 친구들과 오랫동안 통화

하고, 문자메시지를 과도하게 많이 전송하며, 유료 컨텐츠 등을 이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휴대전화 사용 요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제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부모와의 갈등을 유발하고(김은경, 2007; 김혜수, 2005), 청소년들의 소비생활을 무너뜨리며 학업에 충실해야 할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로 내모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윤두연, 2005). 이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휴대전화가 손에 없을 경우 심리적으로 큰 불안감을 느끼고(김혜수, 2007; 장혜진·채규만, 2006; 최이순, 2007), 휴대전화가 오랫동안 울리지 않으면 벨이 제대로 설정됐는지 확인하거나 다른 사람의 벨소리를 자신의 벨소리로 착각하는 등의 증세를 보이는 심리적인 문제(최병목 등, 2005)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수업 시간이나 자율학습 시간에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학습 태도와 집중력에, 그리고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업적 문제들(민선애, 2007; 이정숙, 2007; 정문균, 2002)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휴대전화는 사용하는데 장소의 제약이 있는 인터넷과는 달리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인터넷보다 휴대전화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에 따라 휴대전화로 인한 문제점 혹은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민선애, 2007)이 또 다른 우려사항이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이러한 문제나 위험을 주관적으로 지각할 경우 휴대전화 사용에 신중을 기하고 사용량을 조절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다(구영모, 2001)고 한다. 만약 청소년들도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손실들을 지각하게 된다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며, 나아가 건전한 휴대전화 소비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손실지각 수준을 측정한 강나희(2004)는 휴대전화의 손실을 신체적, 금전적, 성능적, 시간적, 사회심리적 손실이라는 5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들 하위요인의 손실지각 수준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금전적 손실지각 수준이 다른 손실지각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다음으로 성능적, 신체적, 사회심리적, 시간적 손실지각의 순으로 높다고 한다. 또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계경제 수준을 낮게 인지할수록 금전적 손실지각, 성능적 손실지각과 시간적 손실지각을 모두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정문균(2002)은 고등학생들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가장 큰 문제로 느끼고 있는 부분은 휴대전화를 소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생활습관 변화에 대한 부작용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휴대전화가 잠시라도 없으면 불안하고 허전해 한다면,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된 후 오히려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외출 횟수가 많아지며 특별한 일이 없어도 습관적으로 친구들과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생활습관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하루 총 통화량이 20분에서 30분 사이인 청소년들이 5분 이하인 청소년보다 휴대전화 사용의 문제점을 더 높게 지각하고, 휴대전화 사용 요금 때문에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부모님과의 갈등이나 선생님의 간섭으로 고민하는 청소년들보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휴대전화 사용 정도에 따라, 그리고 사용 요금 부담에 따라 휴대전화의 문제점 지각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이처럼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유형은 다양하고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휴대전화 소비자가 휴대전화에 대한 손실을 지각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고, 자신도 모르게 점점 휴대전화에

의존하게 되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손실을 명확히 지각하게 함으로써 휴대전화 소비행동 방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의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강나희, 2004; 최은영, 2007; 허경옥, 2003).

3. 휴대전화 소비의식

휴대전화 소비의식이란 사전의 구매 계획에서부터 실제적인 구매, 휴대전화 사용과 관리 및 처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김경훈, 2003) 휴대전화의 소비방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생각이나 가치(최은영, 2007)를 의미한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빈번히 사용하는 소비재의 하나가 휴대전화이고, 이러한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인해 지출하는 청소년의 소비금액이 2배 이상 증가했다(권한숙, 2004; 윤두연, 2005)고 한다. 그러나 경제적 수입이 없는 청소년들은 휴대전화의 단말기 비용 및 사용 요금을 스스로 납부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이 대신 부담해 주시기 때문에(곽민주, 2004; Lee, 2007)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은 휴대전화 사용을 소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박혜진, 2005; 윤두연, 2005). 이와 같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소비의식의 부재로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무절제하게 사용하여 과다하게 청구된 휴대전화 사용 요금 때문에 고민을 하거나 부모와 갈등을 일으킨다(김은경, 2007). 따라서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및 부모와의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휴대전화의 사용이 소비와 직결된다는 인식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휴대전화에 대한 올바른 소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김시월·김유진, 2008; 이지선, 2005).

이지선(2005)은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행동

중에서 계획구매, 정보탐색, 정보활용을 합리적 소비행동으로, 과시소비, 충동소비, 모방소비를 비합리적 소비행동으로 분류하면서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합리적으로 휴대전화 소비행동을 하고 있고, 비합리적 소비행동 중에서는 과시소비가 가장 높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청소년 요금제를 이용하고, 휴대전화 구입 시 선택기준으로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며, 그 다음으로 디자인을 고려한다고 말한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용하는 기간은 1년 미만이고, 고장이나 분실로 교체한다는, 그리고 교체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집에 방치하고 있다는 청소년이 가장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비선(2003)은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 청소년의 과시소비 성향은 그리 높지는 않다고 하면서 이지선(2005)과 마찬가지로 분실이나 고장으로 휴대전화를 가장 많이 교체하며, 그 다음으로 더 좋은 디자인이나 기능 때문에 교체하고, 그리고 역시 대부분의 청소년들(84.1%)이 청소년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중학생의 휴대전화 소비행동을 구매행동과 사용행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김영주, 최정혜와 장상옥(2008)은 중학생들이 휴대전화의 사용행동을 구매행동보다 더 잘하고 있고, 성적이 중·상위권인 학생들과 한 달 용돈이 적은 학생들이 휴대전화 사용행동을 더 바람직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어머니에 의한 소비자교육의 가치교육, 구매교육, 시민의식교육 중에서 시민의식교육이 자녀의 전반적인 휴대전화 소비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의 소비가치와 소비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김시월과 김유진(2008)은 이지선(2005), 최비선(2003)과는 달리 청소년들이 새로운 디자인이나 기능 때문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경

우가 가장 많고, 오락적인 측면에서 휴대전화를 가장 많이 활용하며, 휴대전화 처분방법으로는 버리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한다. 또 휴대전화 소비행동을 계획, 구매, 사용, 처분행동의 네 단계로 분류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청소년 소비자의 휴대전화 소비행동에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휴대전화의 소비가치 및 소비의식도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에 영향을 미쳐 실제 소비행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휴대전화의 소비의식에 관한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소비의식을 사전 계획, 실제적인 구매, 효과적인 사용 및 처분 등 네 단계로 분류하여 각 단계에서의 소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청소년들에게 휴대전화 소비교육을 실시한다면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휴대전화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김시월·김유진, 2008).

4. 휴대전화 사용동기 유형과 손실지각에 따른 휴대전화 소비의식

오늘날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휴대전화를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사용동기와 소비, 휴대전화 손실지각과 소비에 대해서만 주로 살펴보고 있는 반면에 휴대전화 사용동기 유형과 손실지각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소비의식 및 소비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권한숙(2004)은 개방형인 청소년은 폐쇄형인 청소년보다 휴대전화를 더 많이 사용하고,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더 자주한다고

말한다. 또한 쾌락형인 청소년은 기능형인 청소년보다 과시·동조적, 유행·오락적 사용동기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더 자주 교체하는 소비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최비선(2003)은 휴대전화 사용동기 요인 중 동조요인이 높은 청소년들이 또래집단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더 많이 사용하고, 최신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한다고 보고하면서 이는 사용동기 요인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한다.

대학생의 휴대전화 사용동기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송중현(2003)은 복합적 사용동기 유형의 대학생이 제한적 사용동기 유형의 대학생보다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고 통화대상자도 많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휴대전화의 도구적 사용동기와 표현적 사용동기가 모두 높은 복합적 사용동기 유형의 대학생은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과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이고 활발한 소비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최은실(2000)의 연구에서는 쾌락지향적 사회·심리비용 민감형인 소비자가 휴대전화 부가서비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무효용 비용 둔감형인 소비자가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다. 또 통신지향적 경제비용 민감형인 소비자는 절약형 휴대전화 요금제를, 무효용 비용 둔감형인 소비자는 표준 휴대전화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휴대전화 사용동기 유형에 따라 소비행동이 다름을 밝히고 있다.

한편 김시월과 김유진(2008)은 청소년들의 소비가치가 휴대전화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본 결과, 절약형 소비가치가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부모님과 연락을 위해서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휴대전화 발신 및 수신횟

수가 적다고 한다. 또한 과시형 소비가치가 높은 청소년들은 친구와의 연락을 위해 휴대전화를, 그것도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하려고 하고,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과 문자메시지 발신 및 수신 횟수가 많다고 한다.

즉, 휴대전화 사용동기 요인 점수가 높은 유형의 소비자들은 사용동기 요인 점수가 낮거나 특정 사용동기 요인 점수만 높은 유형의 소비자들보다 휴대전화를 더 많이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 자주 연락하며(권한숙, 2004), 다양한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송중현, 2003) 등 적극적인 휴대전화 소비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휴대전화 사용동기 유형에 따라 휴대전화 소비행동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휴대전화는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과 이점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잘 사용하면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매체이다. 그러나 휴대전화의 잘못된 사용은 잘못된 소비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 및 손실에 대해 지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손실지각 수준을 알아본 강나희(2004)는 휴대전화의 월평균 사용 요금이 평균 이상인 청소년들은 금전적 손실지각과 시간적 손실지각이 높고, 사회심리적 손실지각은 청소년 모두에게서 대체로 일정한 손실지각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한다.

허경옥(2003)은 성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건강 및 경제적 손실지각 정도가 소비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경제적 손실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자 만족은 낮고, 건강적 손실지각 수준은 소비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위험지각 정도에 대해 살펴본 구영모(2001)는 위험지각 정도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구매태도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03)

변수	내용	빈도(%)	변수	내용	빈도(%)
성 별	남	361(71.8)	월평균 용 돈	5만원 미만	426(84.7)
	여	142(28.2)		5만~10만원 미만	59(11.7)
가 정 의 경제수준	상	21(4.1)		10만원 이상	18(3.6)
	중상	87(17.3)	학 년	중학교 2학년	204(40.6)
	중	281(55.9)		중학교 3학년	111(22.0)
	중하	95(18.9)		고등학교 1학년	74(14.7)
	하	19(3.8)		고등학교 2학년	114(22.7)
아 버 지 연 령	39세 이하	13(2.6)	어 머 니 연 령	39세 이하	71(14.1)
	40~49세	424(84.3)		40~49세	395(78.5)
	50세 이상	60(11.9)		50세 이상	32(6.4)
	무응답	6(1.2)		무응답	5(1.0)
아 버 지 학 령	중졸이하	42(8.3)	어 머 니 학 령	중졸이하	37(7.4)
	고졸	231(45.9)		고졸	297(59.0)
	전문대졸	40(8.0)		전문대졸	29(5.8)
	대졸	153(30.4)		대졸	109(21.7)
	대학원 이상	31(6.2)		대학원 이상	26(5.2)
아 버 지 직 업	무응답	6(1.2)	어 머 니 직 업	무응답	5(0.9)
	농림어업자	29(5.8)		농림어업자	17(3.4)
	자영업	190(37.8)		자영업	128(25.4)
	임시직	29(5.8)		임시직	25(5.0)
	생산직	70(13.9)		생산직	41(8.2)
	사무직	77(15.3)		사무직	54(10.7)
	행정 관리직	30(6.0)		행정 관리직	5(1.0)
	전문직	20(4.0)		전문직	23(4.6)
	무직/전업주부	10(2.0)		무직/전업주부	167(33.2)
	기타	42(8.4)		기타	38(7.6)
무응답	6(1.0)	무응답	5(0.9)		
계		503(100)	계		503(100)

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물건의 구매 시 더욱 신중하게 소비하는 것처럼, 소비자의 위험지각 정도가 높으면 구매나 사용 등의 소비의식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처럼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손실과 위험에 대해 지각하는 것은 휴대전화 소비 및 소비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구영모, 2001; 허

경옥, 2003)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휴대전화 사용 동기 및 유형에 따른, 그리고 휴대전화 손실지각 정도에 따른 휴대전화 소비의식에 대해 일관성이 없거나 심지어 상반된 결과까지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각 변인에 따라 휴대전화 소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는 것보

다는 휴대전화 사용동기 유형과 손실지각 정도의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더 정확하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동기 유형과 손실지각 정도가 앞으로의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휴대전화의 사용동기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경제지향적, 건강지향적, 관계지향적, 교육지향적, 기능지향적, 환경친화적)에는 차이가 있는가?

2) 휴대전화의 손실지각(경제적, 학업적, 신체적, 심리적)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에는 차이가 있는가?

3) 휴대전화의 사용동기 유형과 손실지각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에는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6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2008년 10월 27일에서 3일에 걸쳐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질문지를 수정·보완한 후 휴대전화의 사용동기, 휴대전화의 손실지각, 휴대전화 소비의식 척도들과 연구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 특성 및 가정생활 조사서로 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8년 11월 13일에서 5일에 걸쳐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6개 중·고등학교의 남·여 학생 60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실시하였다. 이 때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급의 담당교사를 방문하여 질문지의 구체적인 내용 및 작성요령을 설명한 후 담당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부·작성하도록 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회수된 질문지는 580부였으며, 이 중 부실기재한 77부를 제외하고 질문지 503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측정도구

1) 휴대전화의 사용동기 척도

휴대전화의 사용동기 척도는 권한숙(2004), 이인희(2001),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6), Leung과 Wei(2000)의 척도를 참고하여 총 2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과시·동조적, 유행·오락적, 커뮤니케이션적, 안심·프라이버시적 사용동기의 4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요인부하량이 .30이하인 문항을 제외시키고 27문항을 휴대전화의 사용동기 척도로 사용하였다. 요인 1은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친구들과 같은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동조적 및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주로 사용하므로 과시·동조적 사용동기(8문항)로, 요인 2는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바꾸고 최신 벨소리 및 그림을 다운받는 등 유행에 민감하고 오락을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주로 사용하므로 유행·오락적 사용동기(5문항)로,

요인 3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약속을 정하는 것에 휴대전화를 주로 사용하므로 커뮤니케이션적 사용동기(8문항)로, 요인 4는 개인적 이야기를 서로 나누거나 심리적 안정을 느끼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므로 안심·프라이버시적 사용동기(6문항)로 명명하였다. 휴대전화 사용동기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과시·동조 요인이 .87, 유행·오락 요인이 .80, 커뮤니케이션 요인이 .71, 안심·프라이버시 요인이 .71이다.

2) 휴대전화의 손실지각 척도

휴대전화의 손실지각 척도는 강나희(2004), 김미라(2007), 최병목(2002)의 척도를 참고하여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심리적 손실지각, 학업적 손실지각, 신체적 손실지각, 경제적 손실지각의 4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요인부하량이 .30이하인 문항을 제외시키고 23문항을 휴대전화 손실지각 척도로 사용하였다. 요인 1은 휴대전화 사용요금 및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부담스러워 음성통화보다는 저렴한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 등 휴대전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 및 손실에 대해 지각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손실지각(6문항)으로, 요인 2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공부나 학습 시간에 방해받고 학교 내 학습 분위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등 휴대전화로 인한 학업적 손실에 대해 지각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학업적 손실지각(6문항)으로, 요인 3은 휴대전화 사용 시 방출되는 유해성분으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고 전자파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등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위험에 대해 지각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체적 손실지각(6문항)으로, 요인 4는 휴대전화에 사람들의 연락이 없을 경우 심리적인 허전함

및 불안함을 느끼고, 벨소리가 들리거나 진동이 울리는 착각을 하는 등 휴대전화로 인한 심리적 손실에 대해 지각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심리적 손실지각(5문항)으로 명명하였다. 휴대전화 손실지각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심리적 손실지각 요인이 .84, 학업적 손실지각 요인이 .81, 신체적 손실지각 요인이 .76, 경제적 손실지각 요인이 .70이다.

3) 휴대전화 소비의식 척도

휴대전화 소비의식 척도는 김영주 등(2008)의 척도를 참고하여 총 5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건강지향적 소비의식, 환경친화적 소비의식, 경제지향적 소비의식, 관계지향적 소비의식, 교육지향적 소비의식, 기능지향적 소비의식의 6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요인부하량이 .30이하인 문항을 제외시키고 48문항을 휴대전화 소비의식 척도로 사용하였다. 요인 1은 앞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면 자신의 예산에 맞게 휴대전화를 구입·사용하고 경제적 낭비를 방지하는 등 경제적 효율을 고려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경제지향적 소비의식(8문항)으로, 요인 2는 전자파 방지기능이 있거나 휴대전화 사용 시 두통 및 어깨 결림을 줄일 수 있는 휴대전화 기기를 구매하고, 건강에 유해한 휴대전화 기기는 처분할 것이라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강지향적 소비의식(9문항)으로, 요인 3은 앞으로 주로 사람들과 연락하고, 모임이나 약속을 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구입·사용할 것이라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계지향적 소비의식(7문항)으로, 요인 4는 앞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다면 공부에 도움이 되고 학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리고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교육지향적 소비의식(8문항)으로, 요인 5는 앞으로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한다면 나에게 필요한 기능 및 성능을 갖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사용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능지향적 소비의식(7문항)으로, 요인 6은 앞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다면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며, 재활용 방법 등을 생각하여 계획·구매·사용·처분할 것이라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환경친화적 소비의식(9문항)으로 명명하였다. 휴대전화 소비의식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건강지향적 소비의식 요인이 .88, 환경친화적 소비의식 요인이 .88, 경제지향적 소비의식 요인이 .84, 교육지향적 소비의식 요인이 .82, 기능지향적 소비의식 요인이 .79, 관계지향적 소비의식 요인이 .77이다.

5. 자료분석 및 통계적 처리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SPSSWIN 1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각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및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휴대전화 사용동기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MANOVA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다변량분산분석)를 실시하였으며, 집단간의 개별비교는

Scheffé의 사후검증법을 적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휴대전화의 사용동기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

청소년들의 휴대전화의 사용동기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동기 척도의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4개 하위요인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군집분석 결과(<표 2>) 휴대전화 사용동기는 3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유형 1은 과시·동조적, 유행·오락적, 커뮤니케이션적, 안심·프라이버시적 사용동기 점수가 모두 낮은 즉, 휴대전화를 소지하고는 있지만 사용동기 중 어디에도 크게 중요성을 두지 않는 유형을 의미하는 '소지형'으로 분류·명명하였다. 유형 2는 커뮤니케이션적, 안심·프라이버시적 사용동기 점수가 다른 유형들보다 높으므로 타인과 대화하고 정보를 나누며, 휴대전화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느끼는 성향이 강한 유형을 의미하는 '도구형'으로 분류·명명하였다. 그리고 유형 3은 과시·동조적, 유행·오락적 사용동기 점수가 다른 유형들보다 높으므로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유행에 민감하며, 오락을 즐기는 성향이 강한 유형을 의미하는 '흥미형'으로 분류·명명하였다.

휴대전화의 사용동기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표 2> 휴대전화 사용동기 유형의 군집분석 결과

	과시·동조	유행·오락	커뮤니케이션	안심·프라이버시
유형 1	-.46a	-.60a	-.55a	-.76a
유형 2	-.31a	.03b	.68c	.61b
유형 3	1.28b	1.05c	.05b	.52b
F값	260.374***	179.666***	101.397***	193.573***

〈표 3〉 휴대전화의 사용동기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Effect	Wilks	Hypoth.DF	Error DF	Apporox.F
휴대전화 사용동기 유형	.769	12.000	990.000	11.601***

***p< .001

〈표 4〉 휴대전화의 사용동기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 하위요인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 결과 (N=503)

휴대전화 사용동기 유형	경제지향적	건강지향적	관계지향적	교육지향적	기능지향적	환경친화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소지형 (217)	2.86 _a (.82)	2.53 _a (.81)	1.83 _a (.61)	2.45 (.75)	2.81 _a (.76)	2.35 _a (.73)
도구형 (167)	3.20 _b (.85)	2.77 _{ab} (.82)	2.11 _b (.58)	2.66 (.82)	3.32 _b (.72)	2.66 _b (.88)
흥미형 (119)	2.94 _a (.76)	2.63 _b (.83)	2.54 _c (.71)	2.47 (.80)	3.15 _b (.77)	2.52 _{ab} (.77)
F값	8.321***	3.988*	49.080***	3.672*	22.282***	7.175***

*p< .05 ***p< .001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휴대전화의 사용동기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 하위요인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4>와 같이 휴대전화의 사용동기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구형은 다른 유형보다 경제지향적 소비의식이, 흥미형은 소지형보다 건강지향적 소비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흥미형은 도구형보다, 도구형은 소지형보다 관계지향적 소비의식이, 도구형과 흥미형은 소지형보다 기능지향적 소비의식이, 그리고 도구형은 소지형보다 환경친화적 소비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도구형인 청소년들의 경제지향적 휴대전화 소비의식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휴대전화의 커뮤니케이션적 효용이 높고 경제적 비용을 민감하게 느끼는 관계지향적 경제비용 민감형의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요금제

중 할인형, 절약형 요금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최은실(2000)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다. 또한 도구형인 청소년들의 기능지향적 휴대전화 소비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영상통화 기능이 있거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거나,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이인희(2001), 장은순(2006)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이 휴대전화의 기능이라는 이지선(2005)과 최비선(2003)의 연구결과와도 일부분 일치한다.

또 흥미형의 사용동기를 가진 청소년들의 건강지향적, 관계지향적, 기능지향적 휴대전화 소비의식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는 이들이 주로 휴대전화를 통해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래집단과 같은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구매·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곽민주, 2004), 그리고 또래 동조의식이 높아

서 친구들과 같은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한다(최비선, 2003)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또한 흥미형인 청소년들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친구들에게 과시하고 더 큰 만족감과 우월감을 느끼기 위하여 새로운 기능을 갖춘 최신 모델을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기능지향적 휴대전화 소비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과시·동조적, 유행·오락적 사용동기 요인이 높은 쾌락형의 청소년들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더 자주 교체하고(권한숙, 2004), 정보·오락적 효용이 높은 쾌락지향적 사회·심리비용 민감형에 속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휴대전화 부가서비스를 사용한다(최은실, 2000)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한편 휴대전화 사용동기 요인 어디에도 크게 중요도를 두지 않는 소지형인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소비의식이 모든 하위요인에서 낮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낮아서 소비의식 또한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휴대

전화 사용에서 도구적 사용동기와 표현적 사용동기가 모두 낮은 대학생들은 휴대전화 사용에 무관심하거나 최소 수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송중현, 2003), 휴대전화 사용동기 요인이 모두 낮은 폐쇄형의 청소년들은 휴대전화를 적게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권한숙(2004)의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으로 볼 수 있다.

2. 휴대전화의 손실지각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

먼저 연구대상 청소년들을 경제적, 학업적, 신체적, 심리적 손실지각 정도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즉 손실지각 점수가 평균과 표준편차를 합한 값보다 크면 손실지각 상집단으로,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점수보다 작으면 하집단으로, 나머지는 중집단으로 분류하였다.

1) 경제적 손실지각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

경제적 손실지각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휴

〈표 5〉 경제적 손실지각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Effect	Wilks	Hypoth.DF	Error DF	Apporox.F
경제적 손실지각	.883	12.000	990.000	5.281***

***p< .001

〈표 6〉 경제적 손실지각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 하위요인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 결과 (N=503)

휴대전화 소비의식 경제적 손실지각	경제지향적	건강지향적	관계지향적	교육지향적	기능지향적	환경친화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상집단(77)	3.50 _c (.86)	2.85 _b (.94)	2.36 _b (.75)	2.65 _b (.77)	3.39 _b (.76)	3.68 _b (.93)
중집단(327)	2.96 _b (.77)	2.66 _{ab} (.77)	2.06 _a (.65)	2.55 _{ab} (.79)	3.01 _a (.74)	2.52 _{ab} (.75)
하집단(99)	2.69 _a (.82)	2.40 _a (.85)	1.99 _a (.69)	2.34 _a (.79)	2.97 _a (.89)	2.27 _a (.83)
F값	23.122***	7.036**	7.363**	3.824*	8.079***	6.137**

*p< .05 **p< .01 ***p< .001

대전화 소비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5>.

이에 경제적 손실지각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 하위요인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에서와 같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손실지각 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중간 정도나 낮은 청소년들보다 높은 관계지향적 소비의식과 기능지향적 소비의식을 보였고, 경제적 손실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지향적 소비의식 수준도 높았다. 그리고 경제적 손실지각 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건강지향적, 교육지향적, 환경친화적 소비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휴대전화의 경제적 손실지각 정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휴대전화 구매·사용 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는 합리적인 소비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어떤 손실보다도 경제적 손실을 지각하는 것이 휴대전화 소비의식 향상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에서 경제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윤두연(2005)과 최비선(2003)의 연구결과나 휴대전화의 통화료 및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더 신중하게 사용한다는 정문균(200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2) 학업적 손실지각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

학업적 손실지각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학업적 손실지각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 하위요인에 대한 단변량

<표 7> 학업적 손실지각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Effect	Wilks	Hypoth.DF	Error DF	Apporox.F
학업적 손실지각	.843	12.000	990.000	7.368***

***p< .001

<표 8> 학업적 손실지각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 하위요인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 결과

(N=503)

휴대전화 소비의식 \ 학업적 손실지각	경제지향적	건강지향적	관계지향적	교육지향적	기능지향적	환경친화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상집단(89)	2.88 (.83)	2.66 (.86)	2.53 _b (.78)	2.54 (.86)	3.05 (.80)	2.51 (.83)
중집단(300)	2.99 (.82)	2.63 (.79)	2.05 _a (.59)	2.48 (.73)	3.12 (.75)	2.51 (.76)
하집단(114)	3.08 (.85)	2.63 (.88)	1.85 _a (.67)	2.63 (.86)	2.91 (.85)	2.43 (.87)
F값	1.534	.043	28.434***	1.378	2.862	.544

***p< .001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표 8>에서와 같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 하위요인 중 관계지향적 소비의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적 손실지각 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중간 정도이거나 낮은 청소년들보다 관계지향적 소비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휴대전화 사용으로 학업적 손실이 크다고 지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학업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휴대전화를 구매·사용하려는 소비의식을 가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휴대전화 구매·사용에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이것은 또래동조성 및 또래관계를 중시하는 청소년기의 특징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로 또래집단 간의 사적이고 긴밀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또래집단의 유대성을 밀접하게 유지하려고 한다는 선행연구들(박준범, 2000; 장혜진, 2002)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3) 신체적 손실지각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

신체적 손실지각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9>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신체적 손실지각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 하위요인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0>과 같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 하위요인 중 건강지향적, 관계지향적, 기능지향적 소비의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신체적 손실지각 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건강지향적, 관계지향적, 기능지향적 소비의식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휴대전화의 신체적 손실지각 정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전자파 방지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자신의 건강을 고려하고, 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어서 사용을 자제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이기 때

<표 9> 신체적 손실지각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Effect	Wilks	Hypoth.DF	Error DF	Apporox.F
신체적 손실지각	.867	12.000	990.000	6.083***

***p< .001

<표 10> 신체적 손실지각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 하위요인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 결과

(N=503)

휴대전화 소비의식 신체적 손실지각	경제지향적	건강지향적	관계지향적	교육지향적	기능지향적	환경친화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상집단(75)	2.99 (.90)	2.87 _b (.89)	2.61 _b (.84)	2.59 (.86)	3.21 _b (.76)	2.61 (.86)
중집단(345)	3.02 (.77)	2.62 _{ab} (.75)	2.03 _a (.58)	2.52 (.74)	3.08 _{ab} (.75)	2.47 (.76)
하집단(83)	2.88 (.98)	2.50 _a (1.00)	1.88 _a (.71)	2.47 (.93)	2.84 _a (.89)	2.50 (.90)
F값	.857	4.178*	29.572***	.446	4.825**	.950

*p< .05 **p< .01 ***p< .001

문에 건강지향적 휴대전화 소비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파가 자신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일수록 휴대전화의 건강 위험인지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허경옥, 2003)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휴대전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는 청소년일수록 휴대전화 사용 시 발생하는 두통 및 어깨 결림을 줄이기 위해서 블루투스 기능이나 전자파 차단 기능 등을 갖춘 최신 휴대전화 단말기에 관심이 높고, 이들을 구매·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건강지향적 휴대전화 소비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신체적 손실지각이 높은 청소년들이 관계지향적 휴대전화 소비의식이 더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건강 문제를 더 많이 지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휴대전화 사용은 자제할지라도 가족들이나 또래집단과의 관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은 필수적인 것

이라는 이들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4) 심리적 손실지각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

심리적 손실지각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1>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심리적 손실지각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 하위요인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표 12>에서와 같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 하위요인 중 경제지향적, 관계지향적 소비의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심리적 손실지각 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관계지향적 소비의식은 더 높은 것으로, 경제지향적 소비의식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전화가 오지 않으면 불안해하거나 허전함과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심리적 손실지각 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앞으로 전화연

<표 11> 심리적 손실지각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Effect	Wilks	Hypoth.DF	Error DF	Apporox.F
심리적 손실지각	.855	12.000	990.000	6.722***

***p< .001

<표 12> 심리적 손실지각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 하위요인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 결과 (N=503)

휴대전화 소비의식 심리적 손실지각	경제지향적	건강지향적	관계지향적	교육지향적	기능지향적	환경친화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상집단(85)	2.82 _a (.90)	2.53 (.90)	2.50 _c (.76)	2.43 (.93)	3.12 (.84)	2.39 (.87)
중집단(316)	2.97 _{ab} (.79)	2.62 (.78)	2.06 _b (.62)	2.50 (.73)	3.08 (.77)	2.48 (.76)
하집단(102)	3.19 _b (.87)	2.75 (.88)	1.86 _a (.66)	2.68 (.82)	2.95 (.78)	2.62 (.86)
F값	4.775**	1.775	22.733***	2.865	1.300	2.106

p< .01 *p< .001

결이 더 잘 되고 친구들끼리 요금할인 혜택을 받아 더 자주 연락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구매·사용하여 친구들과 동질감 및 일체감을 가지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관계지향적 휴대전화 소비의식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또래집단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의 필요성이 간절하며, 휴대전화를 소유하지 못한 학생들은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사용한다(최비선, 2003)는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휴대전화는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시켜 주고, 소속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김은옥(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부분 일치한다.

한편 심리적 손실지각 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휴대전화로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인 불안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로, 휴대전화 소비에서 경제적인 부분보다 심리적인 보상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경제지향적 휴대전화 소비의식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3. 휴대전화의 사용동기 유형과 손실지각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

우선, 청소년을 휴대전화 손실지각 정도의 전체 점수를 이용하여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즉, 손실지각 점수가 높은 상위 33% 청소년을 상집단(M=2.57, SD=.39)으로, 손실지각 점수가 낮은 하위 33% 청소년을 하집단(M=1.32, SD=.17)으로, 그 나머지는 중집단(M=1.83, SD=.14)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휴대전화의 사용동기 유형과 전반적인 손실지각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표 13〉 휴대전화의 사용동기 유형과 손실지각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Effect	Wilks	Hypoth.DF	Error DF	Apporox.F
사용동기 유형(A)	.883	12.000	978.000	5.214***
손실지각 정도(B)	.923	12.000	978.000	3.321***
A × B	.949	24.000	1707.127	1.075

***p< .001

〈표 14〉 휴대전화 손실지각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 하위요인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 결과 (N=503)

휴대전화 소비의식 손실지각 정도	경제지향적	건강지향적	관계지향적	교육지향적	기능지향적	환경친화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상집단(165)	2.97 (.86)	2.69 (.81)	2.45 _a (.69)	2.53 (.79)	3.16 (.76)	2.54 (.81)
중집단(177)	3.06 (.79)	2.63 (.81)	2.02 _b (.62)	2.51 (.79)	3.13 (.77)	2.52 (.80)
하집단(161)	2.94 (.84)	2.59 (.87)	1.80 _c (.60)	2.54 (.81)	2.89 (.81)	2.41 (.81)
F값	.463	.487	14.646***	.391	1.322	.308

***p< .001

소비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대전화의 사용동기 유형의 주효과와 전반적인 손실지각 정도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휴대전화 사용동기 유형과 손실지각 정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휴대전화 사용동기 유형에 따른 휴대전화 소비의식 하위요인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 결과는 <표 4>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전반적인 손실지각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 하위요인에 대해 단변량분산분석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휴대전화의 전반적인 손실지각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경제지향적, 건강지향적, 교육지향적, 기능지향적, 환경친화적 소비의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관계지향적 소비의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휴대전화의 전반적인 손실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관계지향적 소비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손실지각 정도가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어서(M=1.91), 손실지각 정도에 따른 청소년 집단 간에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휴대전화 손실지각 수준이 낮은 본 연구의 대상자들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손실지각이 높거나 낮은 청소년들 모두의 휴대전화 소비의식에 사용동기 유형의 특성에 따른 경향성만 부각되고 전반적인 손실지각 정도는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로 인한 손실을 손실로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청소년들 스스로 휴대전화로 인한 이러한 손실들까지 지각하

게 되어 청소년들 간의 손실지각 수준에 차이가 많이 존재하게 된다면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동기 유형과 전반적인 손실지각 정도의 상호작용에 의한 휴대전화 소비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휴대전화의 전반적인 손실지각 정도에 따라 관계지향적 휴대전화 소비의식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이미 앞에서 논의되었던 경제적, 학업적, 신체적, 심리적 각 하위영역에서의 손실지각 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모두 관계지향적 휴대전화 소비의식이 공통적으로 높았던 것과 유사한 경향이다. 다시 말하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전반적인 손실지각 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서 또래관계 및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휴대전화는 자신들만의 커뮤니티 및 소속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도구라는 김은옥(2005)의 연구결과, 청소년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또래집단 간의 사적이고 긴밀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서로의 관계를 밀접하게 유지하려고 한다는 박준범(2000)의 연구결과와 일부분 일치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소비에서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친구들과 같은 휴대전화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한다는 최비선(2003)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연구결과 및 해석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휴대전화의 사용동기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구형인 청소년들은 휴대전화 소비의식의 하

위요인 중 경제지향적, 기능지향적, 환경친화적 휴대전화 소비의식이 높고, 흥미형인 청소년들은 건강지향적, 관계지향적, 기능지향적 휴대전화 소비의식이 높으며, 소지형인 청소년들은 다른 유형들보다 휴대전화 소비의식의 모든 하위요인이 낮게 나타났다.

타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심리적 만족을 느끼는 도구형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예산범위 내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영상통화 등의 최신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를 앞으로 구매·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경제지향적, 환경친화적, 기능지향적 휴대전화 소비의식이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

한편 흥미형의 청소년들은 휴대전화로 친구들과 연락하고 또래집단과 동일한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친구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는 휴대전화를 구매·사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지향적, 기능지향적, 건강지향적 휴대전화 소비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도구형과 흥미형인 청소년들의 교육지향적 휴대전화 소비의식이 낮다는 것은 휴대전화를 학업을 위한 도구로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휴대전화로 학습 자료를 검색하고, 전자 사전을 이용하는 등 자신의 학업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흥미형의 청소년들에게는 낮게 나타난 경제지향적, 교육지향적, 환경친화적 휴대전화 소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업에 도움이 되고, 유행하는 휴대전화 기기만을 선호하기 보다는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또 환경을 보존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구매·사용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휴대전화에 관한

정보를 기술·가정 수업 중 소비단원을 통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휴대전화 사용동기 요인 어디에도 크게 중요도를 두지 않는 소지형의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보다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에 휴대전화 소비의식 또한 낮게 나타났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소지형에 속한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 목적을 좀 더 분명히 하고, 그 목적에 따라 의미 있게 사용하도록 전반적인 휴대전화 소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비자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청소년의 다양한 휴대전화 소비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동기를 파악하여 유형별로 차별화된 휴대전화 소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더욱 올바르게 휴대전화를 구매·사용·처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휴대전화의 손실지각 중 경제적 손실지각 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모든 하위요인의 휴대전화 소비의식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휴대전화를 계획·구매·사용·처분하려고 할 때 경제지향적 휴대전화 소비의식 뿐만 아니라 모든 휴대전화 소비의식을 고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학업적 손실지각 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관계지향적 휴대전화 소비의식이, 신체적 손실지각 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건강지향적, 관계지향적, 기능지향적 휴대전화 소비의식이, 그리고 심리적 손실지각 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높은 관계지향적 휴대전화 소비의식을 보였다.

이처럼 휴대전화로 인한 손실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휴대전화를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관계지향적 휴대전화 소비의식을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휴대전화 소비의식을 높임으로써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문제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동기 유형과 전반적인 손실지각 정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대전화의 전반적인 손실지각 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보다 관계지향적 휴대전화 소비의식이 더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휴대전화의 경제적, 학업적, 신체적, 심리적 손실지각 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관계지향적 휴대전화 소비의식이 모두 높게 나타난 앞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휴대전화를 통해 친구들과 연락하고 또래관계의 유지 및 발전을 중시하는 청소년기의 특성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및 논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직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이 뚜렷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의 청소년들에게는 휴대전화의 문제점 및 손실이 잘 지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특별활동 및 방과 후 수업시간에 바람직한 휴대전화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청소년의 경제권 및 생활권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님에게 휴대전화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휴대전화 사용내역 및 사용금액 등을 기입해보도록 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소비생활을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청소년 단체 및 소비자관련 기관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비자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학교와 청소년 단체를 통해 이를 확산시키고 보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휴대전화 사업자들은 경쟁적인

10대 마케팅을 중단하고 청소년 소비자에게 유리한 휴대전화 요금제를 개발하거나 요금을 인하시키며, 청소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청소년 맞춤형 휴대전화 기기를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에 대한 휴대전화의 사용동기 유형과 손실지각 정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조사한 본 연구는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극히 드물어서 본 연구결과와의 비교·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휴대전화 소비자를 좀 더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손실지각 변수를 세분화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청소년 휴대전화의 소비의식 및 소비행동에 관한 교육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 주 사용 계층인 중·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휴대전화 사용자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져서 최근에는 초등학생들도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연구한다면 연령에 따른 휴대전화 소비의식의 변화 및 차이 등을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휴대전화 소비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나희(2004). 청소년 소비자의 이동전화 사용관련 손실지각 수준 및 유형화 연구.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박민주(2004). 청소년의 휴대폰 이용실태와 중독적 이용.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구영모(2001).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 표준화 정도에 따른 소비자의 위험인지 차이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권한숙(2004).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행동과 유형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김경훈(2003). 소비자론. 서울 : 형설출판사.
 - 6) 김광수 · 박효정 · 송인기(2006). 이동전화의 이용에 따른 결과와 가치의 탐색. 한국언론학보 50(1), 60-90.
 - 7) 김미라(2007). 학습에 미치는 청소년 휴대전화 문화의 영향.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8) 김선만(2000). 청소년의 이동전화 구매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김시월 · 김유진(2008). 청소년 소비자의 소비가치와 소비행동과의 관계-이동전화 소비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6(3), 13-26.
 - 10) 김영주 · 최정혜 · 장상옥(2008). 어머니에 의한 소비자교육이 중학생의 휴대폰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20(3), 163-177.
 - 11) 김은경(2007). 고등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수준에 따른 자기통제력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김은옥(2005). 중 · 고생의 휴대폰 사용 정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김혜수(2005). 청소년과 휴대전화. 서울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14) 김혜수(2007). 휴대전화 중독 경향성 청소년의 심리, 사회 환경적 특성-공격성, 충동성, 우울, 부모-자녀관계, 주의집중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2(2), 383-393.
 - 15) 나은영(2001). 이동전화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동전화 커뮤니케이션의 매체적 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5(4), 189-230.
 - 16) 민선에(2007).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박용기(2003). 대학생들의 이동전화 중독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7(2), 250-281.
 - 18) 박준범(2000). 청소년들의 이동전화 이용현상에서 나타나는 하위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 박혜진(2005). 청소년 소비자의 이동전화 소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 명옥(2005).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1) 동규 · 조운경(2002). 이동전화 이용자의 집단적 특징에 따른 이용 유형 연구. 한국언론학보 46(6), 153-190.
 - 22) 송재원(2005).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관계에 따른 청소년의 핸드폰 이용행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3) 송중현(2003). 이동전화 이용동기와 행태가 사회적 관계 및 규범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4) 양심영 · 박영선(2005).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성향 예측모형. 대한가정학회지 43(4), 1-16.
 - 25) 윤두연(2005). 청소년의 또래집단 성향이 휴대폰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6) 이경숙(2002). 청소년 소비자와 성인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관한 연구-휴대폰 구매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7) 이인희(2001). 대학생 집단의 휴대폰 이용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5(3), 261-293.
 - 28) 이정숙(2007).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실태

- 및 휴대폰 중독 정도에 따른 또래관계의 질,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67-86.
- 29) 이정은(2006). 중학생의 이동전화 사용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수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0) 이지선(2005). 청소년 소비자의 휴대전화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1) 장은순(2006).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동기와 중독의 관계.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2) 장혜진(2002).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자기개념, 애착, 자기 통제력, 충동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3) 장혜진·채규만(2006). 기술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휴대폰 사용 중독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1(4), 839-852.
- 34) 정문균(2002). 고등학교생의 휴대폰 이용과 생활양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5) 천혜정(2006). 중학생의 휴대전화 이용동기 및 성별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01-112.
- 36) 청소년보호위원회(2004).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실태 및 사회적 의미 고찰. 청소년보호위원회.
- 37) 최병목(2002). 중·고교생의 휴대폰사용 유형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대한보건협회 학술지 28(4), 398-417.
- 38) 최병목·조규영·연화준·정무환·김재열·이명주(2005).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실태 조사연구. 서울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39) 최비선(2003). 이동전화 사용에 따른 청소년의 과소비와 또래집단과의 동조성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0) 최은실(2000). 이동전화 서비스의 효용과 비용요인에 따른 소비자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1) 최은영(2007). 청소년의 소비의식이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2) 최이순(2007).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3) 편혁미(2003).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동기에 관한 연구 : 실업계 고등학교생들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4) 한국소비자보호원(2004). 청소년 이동전화 및 무선인터넷 이용실태. 서울 : 한국소비자보호원.
- 45)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6). 휴대전화 중독 원인 분석. 서울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46) 허경옥(2003). 소비자 위험인지가 소비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동전화 사용을 중심으로-. 마케팅과학연구 11, 165-182.
- 47) Cormier, M. M. A.(2007). Acquisition, modalities of usage, and domestication of mobile phones in the cultural context of Haiti : The case of high school students. Dissertation of Ph. D. University of Ottawa.
- 48) Lee, S. K.(2007). A comparative study of N-generation's mobile phone us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n society. Dissertation of Master. University of Kansas.
- 49) Leung, L. & Wei, R.(1998). The gratifications of pager use : Sociability, information-seeking, entertainment, utility, and fashion and status. Telematics and Informatics 15, 253-264.
- 50) Leung, L. & Wei, R.(2000). More than just talk on the move : Uses and gratifications of the cellular phone.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7(2), 308-320.

- 51) Ling, R.(1998). We will be reached : The use of mobile telephone among Norwegian youth. Telenor R&D Report.
- 52) Roos, J. P.(1993). Thirty thousands yuppies : Mobile Telephone in Finland. *Telecommunications Policy* 17(6), 446-458.
- 53) Wiebe, K. K.(2005). The wireless lifestyle :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e, cellular telephones, and college students' risk behaviors. Dissertation of Ph. D. South Dakota State University.

- 투 고 일 : 2009년 7월 15일
- 심 사 일 : 2009년 7월 22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8월 25일